

강북 대형공원 기본계획

김도경* · 최원만** · 홍형순***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 **(주)신화컨설팅 ·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Landscape Design Proposal for Gangbuk Large Park

Kim, Do-Kyong* · Choi, Won-Man** · Hong, Hyoung-Soon***

*College of Art and Design, Kyunghee University

**SynWha Consulting Co., Ltd.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ABSTRACT

Although the Dreamland site was the only flat amusement park in the northern part of Seoul, the site lost its function as a regional park due to aging and, therefore, was no longer in use. The site is surrounded by currently existing high dense low-story housing blocks and proposed new towns. A renovation plan for Dreamland was raised by the City of Seoul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urban environment in the northern part of Seoul.

This study articulates the design concepts and strategies of the prizewinning work of the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Gangbuk Large Park. The three key poi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design proposal tried to find a new possibility for a large mountain park in an urban areas. These days, mountain parks are used limitedly as ordinary living spaces for activities such as a walking, hiking, and physical training. New strategies were sought to reconstruct the sentiment with which our ancestors enjoyed the mountains. Second, this proposal tried to make Dreamland a socially self-sufficient park. We designed a park which generates self-energy and which communicates with the city, not a park which only exists as a green island in a city. Lastly, rain fed paddy fields, a typical Korean vernacular landscape, was a tangible space which represented people's life-styles harmonizing with the nature. Rain fed paddy fields is a design motif which puts the three surrounding mountains together with the site. It is expected that the new design will works as a noted place.

Key Words: Large Mountain Park, Independent Park, Paddy Fields, Vernacular Landscape

국문초록

드림랜드 부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강북지역의 유일한 평지화된 놀이공원이었으나, 현재는 시설 노후화와 방치로 인해 지역 거점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부지 주변은 기존의 밀집주거와 새로 조성될 뉴타운 등이 혼재할 것이며, 특히 지역 여건상 강북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형공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강북 대형공원 조성사업이 대두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Do-Kyong Kim, College of Art and Design, Kyunghee University, Yongin-si, Gyeonggi-do 446-701, Korea, Tel.: +82-11-713-3735, E-mail: kimdk@khu.ac.kr

본 연구는 강북 대형공원 조성사업 국제 현상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설계전략과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계획안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형 공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서 산책과 등산, 체력단련시설 등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산지형 공원을 선조들이 산을 즐겼던 그 정취를 재현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사회성 강한 자립공원을 만들고자 하였다. 도시 속에 섬으로 존재하는 녹색 숲으로서의 공원이 아닌 자체적인 변화의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도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다량이 논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이념을 표현한 실체적 공간이었으며, 우리의 대표적인 향토적 경관이기도 하다. 이런 다량이 논은 세 개의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대상지를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 모티브였으며, 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정겨운 풍경은 도시속의 명소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주제어: 산지형 공원, 자립공원, 다량이 논, 향토적 경관

I. 서론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숲 등 서울시가 추진한 대규모 공원 조성사업으로 서울 전역의 공원 인프라는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규모 평지형 공원들은 대부분이 남산이 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강북 지역의 생활권 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의 동북부 지역은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등 도시자연공원과 초안산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산지형 공원으로 인해 적극적인 이용이 제한된다. 또 이전에 예정된 용산 미군기지 터와 같이 대형공원 조성을 위한 잠재 후보지가 없어 대형공원 조성에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서울특별시, 2008).

강북구 번동 일대에 위치한 본 계획대상지 주변 지역은 기존의 밀집주거지와 아파트단지가 존재한다. 또 인접하여 2016년을 목표로 장위 뉴타운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공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계획대상지는 드림랜드 부지와 이를 둘러싼 세개의 산지로 구성된다. 드림랜드는 강북지역 유일의 놀이공원이었으나, 현재는 시설 노후로 운영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어 혐오시설로 존재하고 있다. 계획대상지의 지형은 과거 드림랜드의 주차장 부지와 유희시설이 설치되었던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곳에 수준 높은 대형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강북지역의 도시환경 개선과 강남·북 균형 발전, 강북의 브랜드 제고 등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과밀화된 거대도시 서울의 강북지역에 조성될 대규모 산지형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계획의 주안점을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밀화된 현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형 공원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과 차별화된 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 내에 파편처럼 존재하는 기존 산지형 공원들의 단조롭고 제한적인 시설과 이용 행태의 개선과 새롭게 조성될 산지형 공

원계획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계획여건

1.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는 2008년 1월에 '강북 대형공원조성 마스터플랜 국제현상공모'를 시행하였다. 이 설계경기의 형태는 일반 공개 방식의 국제현상공모로 진행되었고, 여기에는 국내·외 업체와 개인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획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산28-6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대상지의 총 면적은 892,716m²이며, 이 중 1단계 사업지구의 면적은 662,627m²이다. 특히, 1단계 사업지구 내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기능을 상실한 채 폐허화된 놀이공원인 드림랜드가 위치하고 있어 경관혐오시설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는 'The Old Gate' - 풍경과 교감하는 이야기가 있는 공원 - 이란 제목으로 출품하여 공동 우수작으로 선정된 계획안의 주안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2. 요구사항

공모지침(서울특별시, 2008)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계원칙'으로 공원조성의 기본방향은 산책, 휴식, 운동 등 생활권 공원 조성을 기본으로 하되, '문화'를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공간구성'은 향후 주변의 뉴타운사업 등으로 늘어나는 공원 수요에 대비하여 적절한 이용 동선, 시설물, 유지관리를 감안하도록 하였다. '조경과 생태계획' 부문에는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수공간 조성에 따른 유지용수 공급 계획 및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할 것과 공원 내 녹지 관리용 급수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양질의 토양으로 치환하거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건축계획'은 공원과 조화되며 상징적인 외관으로 디자인하되 에너지 순환 등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건물이 도입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산책로 및 포장계획', '경관조명' 등에 대한 요구조건도 있었다. 특히 서울의 강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전망대 계획이 요구되었다. 또 1, 2단계의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를 605억원 이내로 제한하였다.

III. 대상지 맥락 분석

1. 산지형 공원으로서 강북공원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은 전체 면적의 26%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의 산은 북한산과 관악산 등 해발고도 800m 이상의 큰 산으로부터 낙산(125m), 남산(265m), 인왕산(338m) 등 크고 작은 산들이 도처에 분포하고 있다. 이 산들은 서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된 경관자원이자 도시생태계를 유지하는 녹지축 형성의 근간이며, 시민의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00).

계획대상지와 같이 해발고도가 100m 내외의 산들은 주로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산책, 등산 등 건강증진을 위한 단조로운 이용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산들의 총 면적은 평지의 대형공원들 면적의 2배를 차지한다(그림 1 참조). 평지에 대규모

의 공원들이 조성되었으나 지역적으로 편재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북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공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산지형 공원에 대해 지형조건을 감안한 적절한 처방과 개선이 필요하다.

2. 거점공원으로서 강북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도시공원을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구분하고, 주제공원은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기타 공원으로 구분된다. 월드컵공원, 서울숲 등 근래에 추진해온 대규모 공원 조성사업의 결과로 서울시 전체의 공원 인프라의 양은 확대되었으나 모두 남산 이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강북지역의 생활권 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서울특별시, 2008). 본 계획 대상지 주변을 에워싼 강북지역의 6개 자치구와 강남지역의 5개 자치구의 인구, 공원 수, 공원 면적 등 주민 편의시설의 양적 비교는 그림 2와 같다.

계획대상지 주변 지역은 서울시에서 비교적 오래된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공원, 녹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계획대상지 주변에는 장위·길음·미아뉴타운 사업 추진으로 공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본 계획대상지에 포함된 오동근린공원 드림랜드는 강북지역의 유일한 놀이공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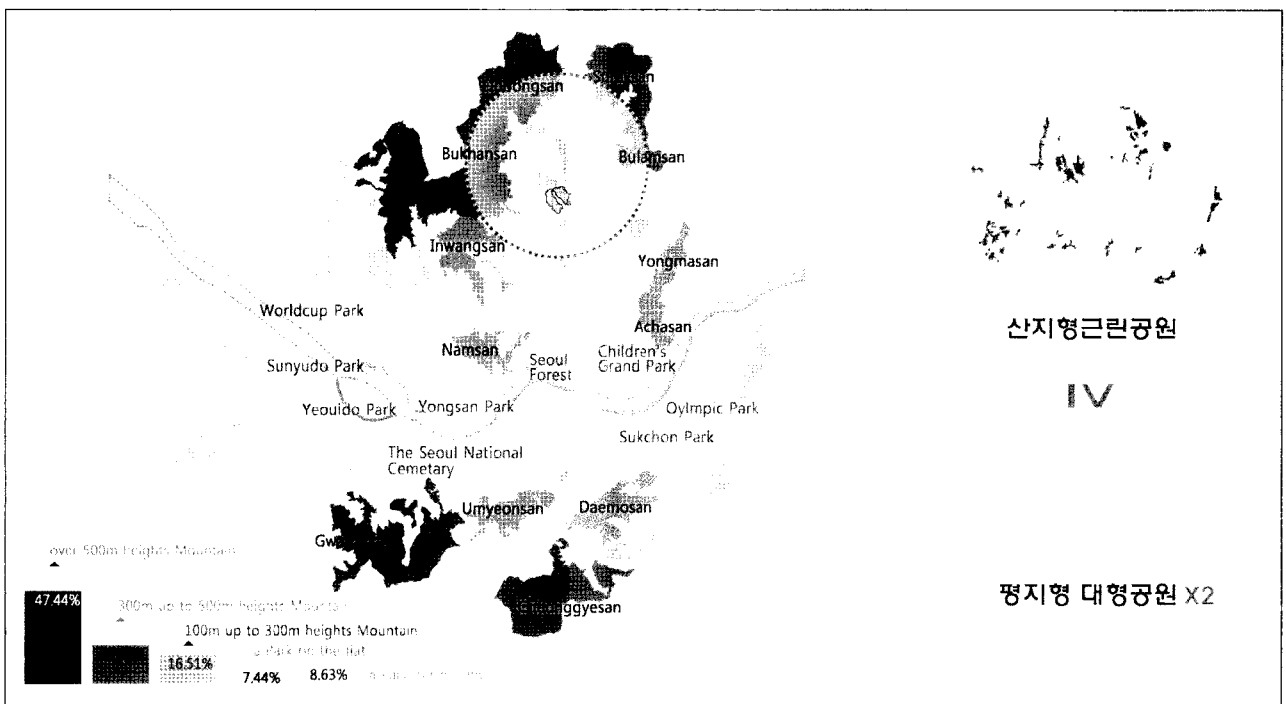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내 산지형 공원과 평지형 대형공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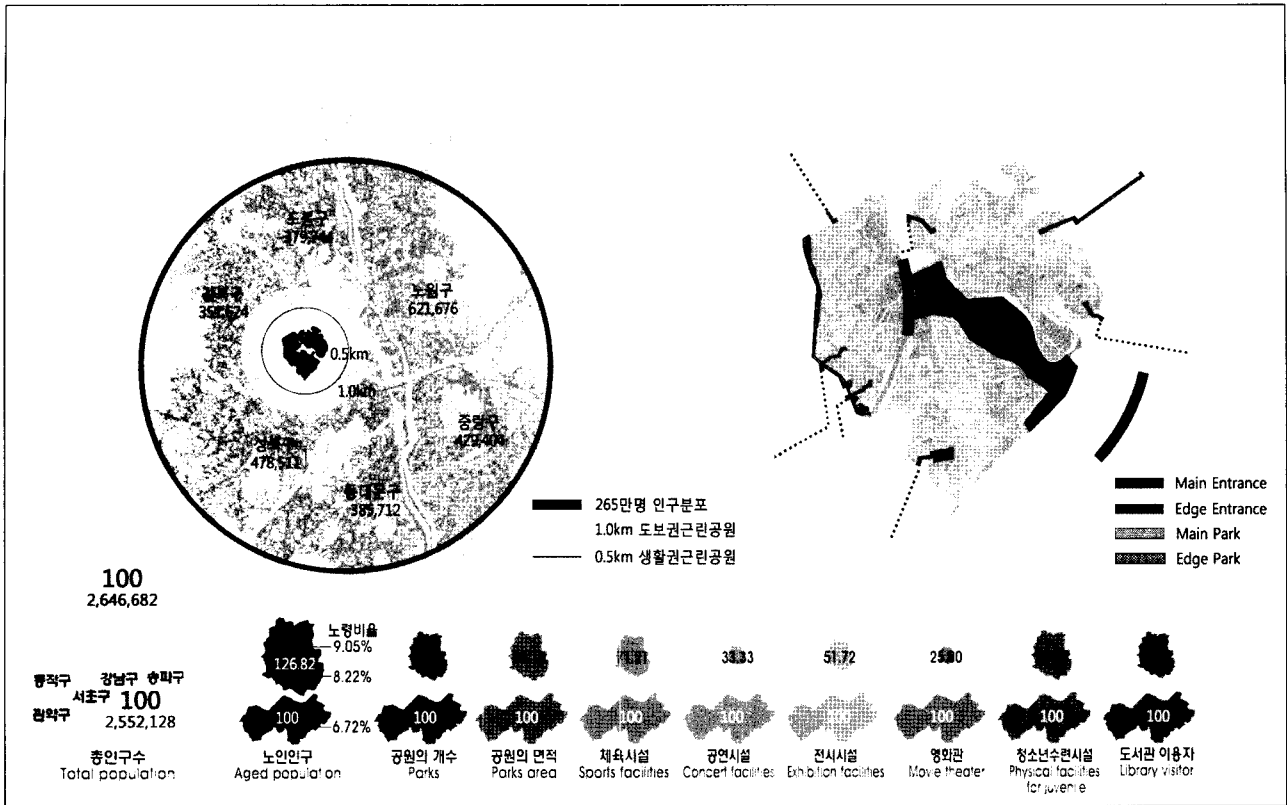


그림 2. 강북지역 거점공원의 필요성

1987년 4월에 개원되어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곳이나 시설노후로 인한 방치로 슬럼화되어 지역 거점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서울특별시, 2008). 따라서 서울시는 드림랜드 부지를 포함하는 3개의 산지를 대형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인근 6개 구가 수혜지역이 되는 강북 동북부지역의 새로운 거점공원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 이를 통해 서울시는 강북지역에 쾌적하고 품격 높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강남·북 균형발전 및 서울 전역의 녹지축 복원과 연계하여 강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08). 이에 따라 본 계획대상지는 2008년 1월 현재 강북 지역 6개 자치구의 265만 인구와 장래의 뉴타운 입주자의 공원수요를 충족시킬 거점공원으로서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근린공원으로서 강북공원

전술한 바와 같이 요구사항으로 제시된 설계원칙에 의하면 공원조성의 기본방향은 산책, 휴식, 운동 등을 수용하는 생활권 공원 조성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생활권 근린공원으로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가족단위로 부터 지역 공동체의 활용을 원활히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시발점은 도시의 일상적 생활공간과 계획대상지인 산이 만나는 연결부의 특성 규명에

서 출발하였다. 즉, 계획대상지와 인접한 주거 유형은 기존의 밀집 주거지, 아파트 단지 그리고 새로 조성될 뉴타운 지구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또, 이들과 만나는 계획대상지의 연결부 역시 지형적 특성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그림 3 참조).

전통적인 주거 밀집지역은 다세대주택으로 증축 등 난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작지만 중요한 오픈스페이스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집안의 작은 정원과 마당이 사라지고, 놀이터이자 이웃과 교류가 일어나던 쉼터와 골목길은 주차장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공동체적 오픈스페이스(communitary open space)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황익주, 2005). 이러한 양상과 달리 기존 아파트단지와 장래의 뉴타운 사업지구는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측면에서 자족성을 갖추고 있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대상지 여건과 요구사항을 감안할 때 본 공원은 인접 거주민들 간의 공동체 회복에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골목길과 산이 만나는 곳에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가 되어야 한다. 1km 내외의 도보권 근린공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민 공동체의 장이 되도록 하며, 인근 18개 초등학교와 도보로 연계되는 지역의 센터로 활성화되는 근린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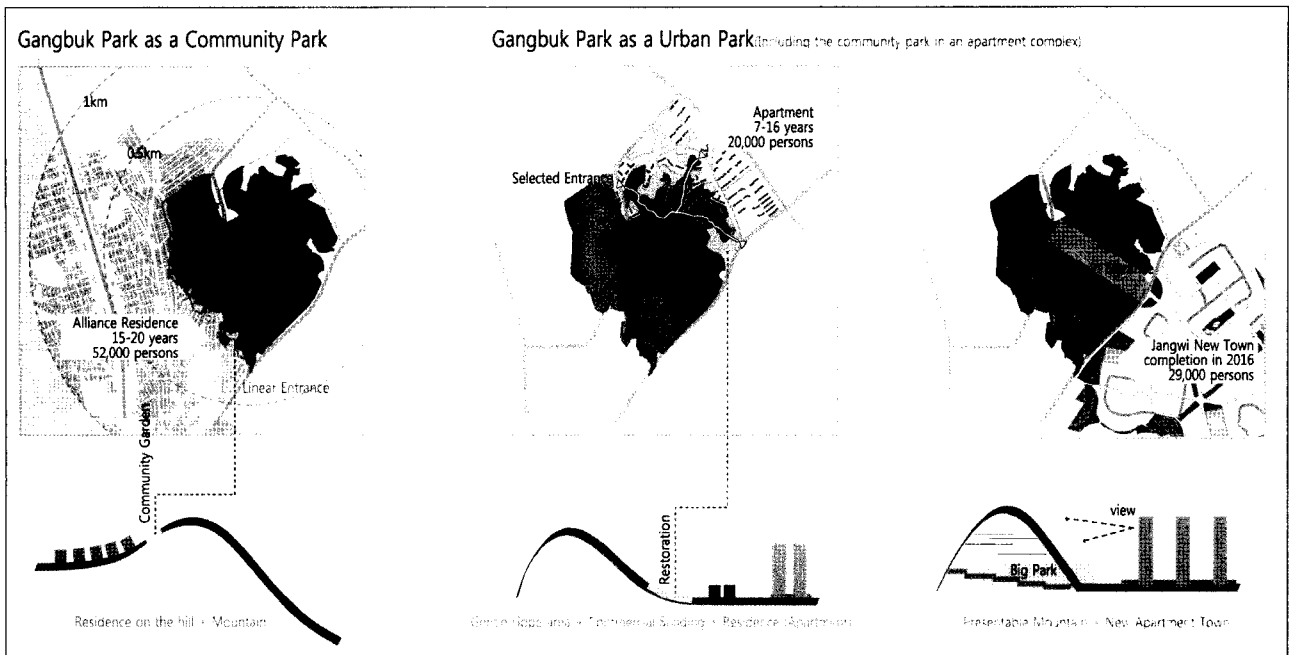


그림 3. 근린공원으로서 강북공원

IV. 기본계획

1. 계획의 주안점

앞서 살펴본 공모지침서 상의 요구사항(requirement)을 토대로 계획대상지의 지형과 입지에 따른 맥락을 분석한 결과, 주요 고려사항(issue)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공원조성에 있어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산지 지형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산지공원의 효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본 계획에서 도출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지의 잠재력

(1) 한국인과 산

서울 강북지역은 지형 특성상 평지가 거의 없으므로 평지에 대규모 공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본 계획대상지도 전체 면적 892,716m² 중 드림랜드 부지 등 일부 평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비율은 62%에 이른다. 이러한 산지는 적극적인 공원시설 도입이 어려운 반면 조망을 확보하고 동적인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그림 4 참조).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우리의 삶과 문화는 산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에 대해 “산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산이기 때문이다. 산이 곧 우리이기 때문이다. 산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최정호, 1993)”라고도 한다.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의 시인과 문사들은 철 따라 즐기면서 시를 지었고 많은 유산기를 남기고 있다. 선비들에게 산 속으로 들어가 노닐고(遊山) 산을 오르는(登頂) 것은 학문과 수양을 향상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즉, 수양과 학문의 정적 요소와 산에 올라 기상을 펴는 동적 요소가 음양의 양면처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김장태, 1993). 이처럼 한국 사람에게 산은 풍류와 정취를 즐기는 정서적인 안식처이자, 사색의 화두를 제공하는 낭만적인 공간이었다. 반면에 오늘날 도시지역 내에 파편으로 존재하는 산지에는 체력단련을 위한 단조로운 시설과 산책과 등산 등에 제한된 이용행태가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산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과 태도, 활용 등은 제약조건이기도한 산지에 대형공원을 계획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2) 한국 고유경관으로서의 산

산은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초월적인 공간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대한 조형물이다(김우창, 2007).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는 공간을 구조화하며 국토 경관의 근간을 이룬다. 겹겹이 이어지는 능선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전답이 들어서고, 곳곳에 자그마한 농가가 있는 풍경은 한국적인 고유경관(common landscape)의 하나이다. 따라서 “사는 곳, 보이는 것이 온통 산뿐인 것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김우창, 1993)”이며, “산이 없는 풍경이란 한국의 현실세계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심상(心象) 세계, 즉, 의식세계에도 없다(최정호, 1993)”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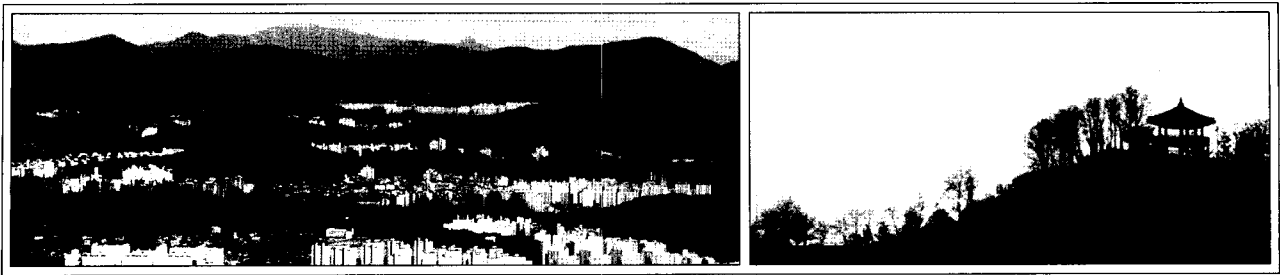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산지와 지형 특성

오늘날의 현대도시에 있어서도 산은 외곽에 존재하며 도시의 배경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도시 내에 파편적으로 존재한다. 도시공간의 궁극적 한계가 초월적 공간에 있다고 한다면, 산은 이미 그러한 것이 주거와 도시공간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밀화된 현대도시에 있어서 산의 경관적 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2) 정서적 고향으로서 산지형 공원

본 계획대상지는 도시 내에 3조각의 파편으로 존재하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주변은 밀집 주거지와 고층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으며 또 인접지역에 대규모의 뉴타운이 개발될 지역이다.

철학자 하이데거(Heidegger, M.)는 홀덜린(Hölderlin, J. C. F.)의 시구를 인용하여 “인간은 지상에서 어떻게 ‘시적으로(dichterisch)’ 거주할 수 있을까(이기상 등, 2008)”라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인에게 산은 ‘좋은 삶’을 지향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이라고도 한다(김동윤, 2007). 삭막한 도시 내에서 자연 지형과 숲이 있는 산지 공원은 산문적인 삶을 시적인 순간으로 만드는 연금술의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갖는다. 또, 바슐라르(Bachelard, G.)는 역동적 상상력을 통해 일상의 평범한 사물을 전혀 새로운 사물로 전환시키곤 했다(곽광수 역, 2003). 그의 몽상가적 시적 꿈꾸기는 사물을 단순히 겉모양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편입시키거나 실제 거주공간으로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시적 상상력을 통해 본 대상지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1) 서정적인 환경

옛 사람들이 산을 대하고 즐기던 태도는 오늘날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다. 도시 내의 산은 ‘저기 있는’(out there) 대상물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소극적 존재물로서 우리가 활용할 목표물로 변질하였다(김경동, 1993). 이제 도시 속의 산은 관광의 대상이며 휴식의 즐거움과 삶의 충만감을 위한 장소로서의 가치가 크다. 이러한 산지 공원은 번잡한 도시생활 가운데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고즈넉한 장소로 간결하면서 시적인 공간구성과 스케일을 통해 서정적 감흥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이야기가 있는 장소

현대인에게 있어서 시적인 삶의 창고는 이야기다. 이야기는 문자와 음성언어, 그림, 제스처, 이미지와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되며 무한한 상상력과 영감을 준다. 이야기를 통해 선조들의 전통과 미적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다. 또 이야기는 다양한 부류의 이웃과 소통을 가능케 한다. 이야기는 현재 삶의 풍요로운 가치와 미래의 창조적 모티브를 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공원에서 화두를 제시하는 구체적인 매체를 통해 개별적인, 또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

2. 기본계획안

1) 디자인 모티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계획대상지는 드림랜드 부지 등 일부 평지를 세개의 작은 산지가 둘러싸고 있다. 따라서 가용지가 부족하며 시민 이용을 위한 공원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부지의 특성을 감안하고 지형과 기존 수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계획의 디자인 모티브로 ‘다랑이 논’이 채택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산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부족함 농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에 층층이 다랑이 논과 밭을 일구고 여기에 의지해 생활해 왔다. 이런 다랑이 논은 산 자락의 경사와 굴곡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제나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며, 처음부터 산자락에 다랑이 밭이 있었다는 듯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다가온다(이용한, 2007). 마치 다랑이 논처럼 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듯한 정겨운 풍경과 여기에 담겨진 공원기능과 시설은 도시 속의 산지형 공원조성에 유용한 모티브로서의 가능성이 크다(그림 5 참조).

2) 계획전략

본 계획대상지는 적극적인 시설도입이 어려운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제한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6개 지구 주민들의 거점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족할 것을 요구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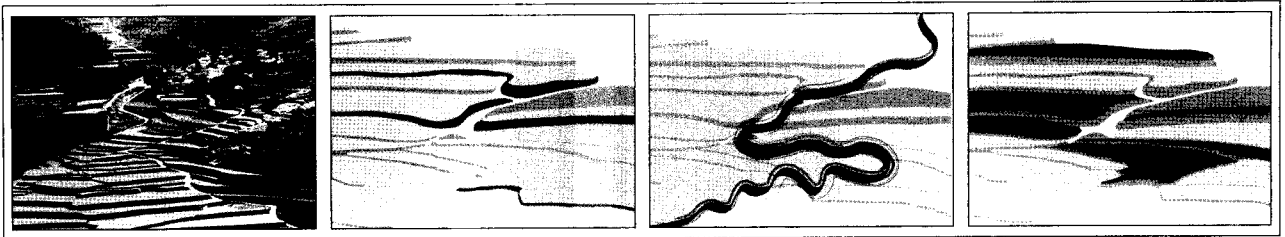


그림 5. 디자인 모티브로서 다랑이논

고 있다. 따라서 산지 지형의 특성을 감안한 시설도입과 다양한 활용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시설 도입공간을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전망이 좋은 봉우리와 능선부, 산 북부의 작은 그루터기, 저지대의 계곡과 바위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적절한 시설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각 시설을 도입은 전통적으로 경관이 수려한 곳에 자연과 인공이 조화되는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겼던 방식대로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각 공간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생태관찰 데크, 커뮤니티 가든, 카페, 전망대, 놀이공간 등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장소들은 산속의 풍부한 의미로 가득한 새소리, 물소리, 음악소리 등을 매체로 문학과 음악, 놀이와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그림 6 참조).

3) 디자인 구조

전술한 바와 같이 산은 한국인의 정서와 한국의 고유경관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을 산에 의지해 살아 왔다. 산에 의지한 촌락은 삶의 터전이었고, 산은 신앙의 대상이며, 정서적 고향이기도 했다. 산이 배경을 이루거나 능선들이 중첩되는 산지경관은 우리나라의 대표경관 (common landscape)로 자리 잡고 있다. 산에 올라 호연지기를 기르거나 시를 읊듯이 산은 전통적으로 심신수양의 장소였으며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이기도 했다. 전

통으로만 존재하는 이러한 산에 대한 태도와 이용행태, 고유의 이미지는 현대도시의 산지형 공원계획에 구현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계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취합되어 본 계획의 중요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산을 즐기고 다양한 활용을 위해 도입되는 시설부지는 산과 유기적으로 조화되는 다랑이논 형태로 도입되었다. 각 노단에는 현대 도시민이 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시설들이 담겨지도록 했다. 각 공간은 자연을 관조하거나 혹은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임과 행사, 문화와 교류 등의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이 모든 공간들은 구불거리는 길 (passage)로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 길을 따라 다양한 이야기의 화두가 되는 요소 (motive)들을 공원의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이야기 (story telling)를 지어가면서 새로운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그림 7 참조).

기존의 산지지형과 이곳에 존재하는 기존수림은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였다. 능선과 사면에 따라 존재하는 4개소의 수목 군락 보존지와 함께 신규 시설지 주변에는 송림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숲 속에서 정서적인 교감과 재미있는 이야기 끼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숲 속 음악당, 전망대, 무인카페, 숲속 도서관들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 시설들은 “문화를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서울특별시, 2008)”이라는 요구사항에 따라 기존 수립지역 내에 자투리로 존재하는 평지들을 발굴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과거 드림랜드 부지에 남겨진 3개소의 큰 비탈면은 각 공간별 경사도에 따라 놀이공간과 에너지 및 야생화를 주제로 한 정원으로 특화하였다.

산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다랑이논의 유기적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조성되는 주요 시설지역은 자연스럽게 지형차를 극복하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였다. 진입부에 위치한 가장 낮은 진입광장이 되며 층층이 전개되는 각 단은 녹지, 수경공간 등 다양한 성격과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각 단들은 다양한 활동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장소와 인프라를 도입하여 도시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수용하고, 전시, 페스티벌, 소규모 이벤트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꼬불꼬불 올라가는 순환로를 따라 각 단에서 연출되는 풍경의 스토리를 읽듯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패산 근린공원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그림 8~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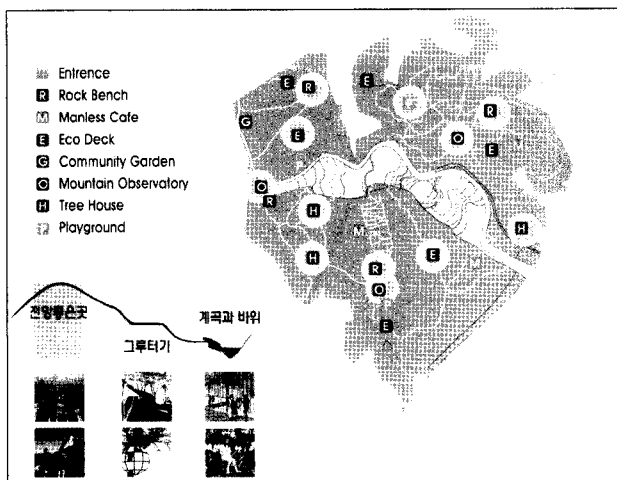


그림 6. 숲으로의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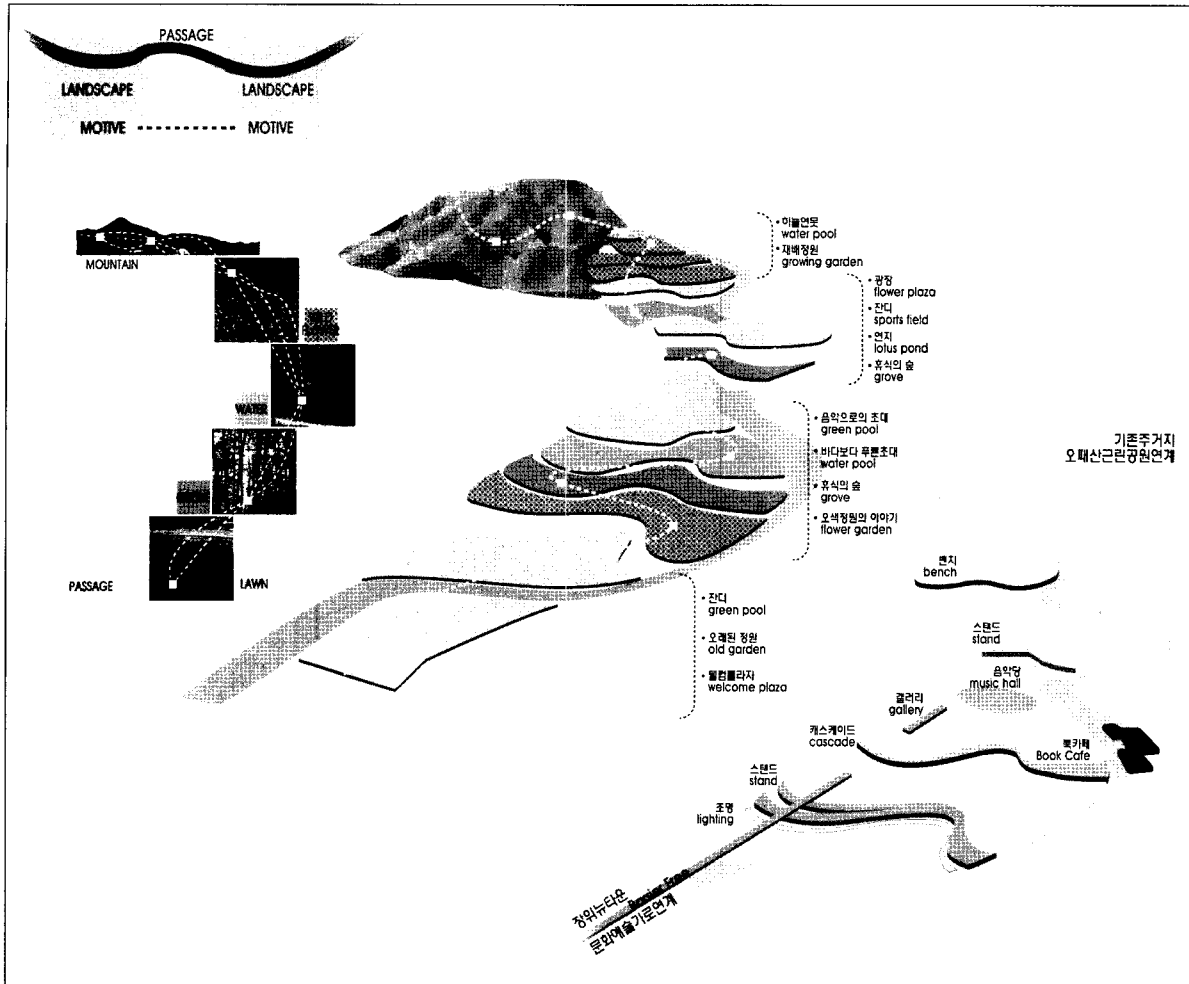


그림 7. 디자인 구조



그림 8. 수공간(Water Pool)



그림 10. 삼각산을 배경으로 하는 재배정원



그림 9. 활용성을 고려한 녹지공간(Green Pool)



그림 11. 순환로(Pa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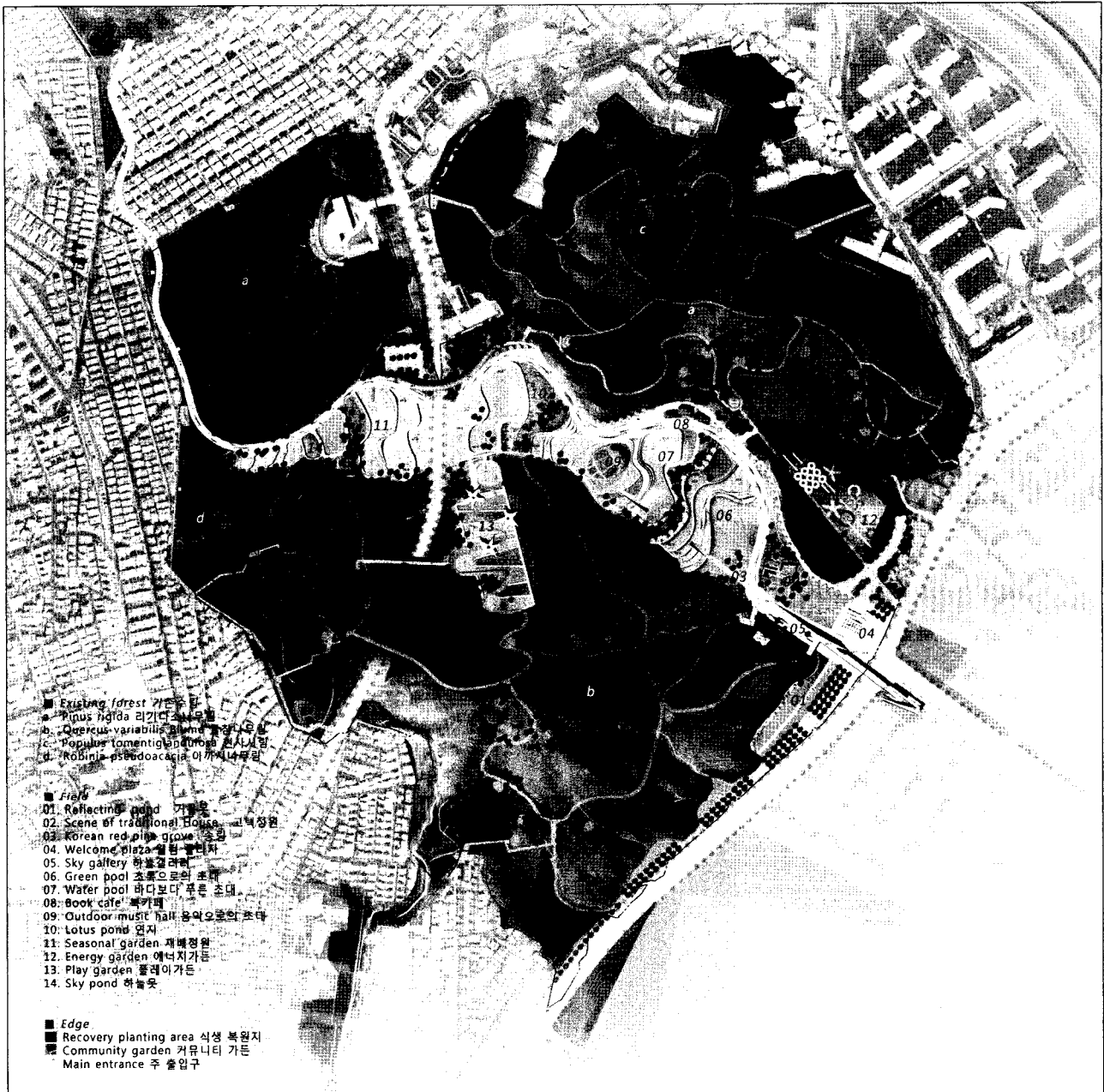


그림 12. 마스터플랜



그림 13. 지형에 따른 활용 프로그램 구상(Section & Program)



그림 14. 조감도

V. 세부계획 및 제안

1. 세부계획

1) 문화 프로그램 계획

본 공원에 도입되는 건축물과 일련의 옥외시설물들에는 통합된 이미지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도시문화의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했으며, 산지와 기존 숲을 배경으로 대상물의 형태와 색채가 대비되므로 차별화된 감흥을 줄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 이미지 통합 프로그램의 주조색은 붉은색으로 하여 각 건물과 시설물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디자인의 형태적 통합은 붉은색의 큐브(red cube), 서클(red circle), 바(red bar)의 형태가 응용되었다. 이들은 강북공원 내에서 '세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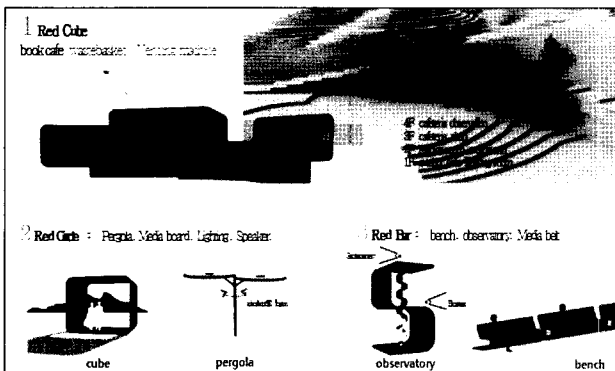


그림 15. 문화 프로그램

되고 다목적(smart & multi-use)'적인 아이콘으로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이들은 용도와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변형 가능하게 계획하였다(그림 15 참조).

2) 야간경관 계획

야간조명을 통해 경사지의 여러 단이 이루는 조형적인 형태를 강조하고 다이내믹한 경관을 연출하도록 하였다. 낮 시간의 서정적인 풍경과 다른 느낌의 도시적이고 조형적인 이미지 경관을 만든다. 단의 선형을 따라 조명을 계획하여 겹겹이 이어지는 조형적인 형태가 아름답고, 계절별로 다른 컬러와 느낌으로 연출한다(그림 16 참조). 또한, 행사시에는 이벤트 안개, 공연, 상향 조명을 사용하여 그림 17과 같이 페스티벌의 화려한 느낌이 나도록 하고, 조명 기기는 태양열 집열판을 장착하여,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생산해서 사용한다.



그림 16. 평상시 야간경관 예시도



그림 17. 이벤트 기간 중 야간경관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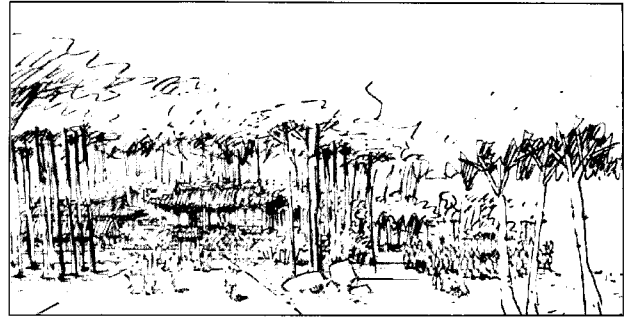


그림 19. 고건축 풍경계획

3) 식재 및 생태계획

계획대상지의 토양조건은 화강암 풍화층으로 구성된 토양으로서 석비레층(saprolite)의 특성을 보인다. 표층의 수분이 침투되면서 화강암이 부식된 상태인 석비레층은 물을 함유하지 않고 내뿜는 특성 때문에 표토가 얇아진 불안정한 토양층이다. 계획대상지는 대부분 참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단순림이며, 관목층과 하층 식생이 빈약하다. 또 비슷한 수령의 숲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층구조로 개선될 필요성도 있다. 토성이 민감한 석비레층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보전 구간을 설정하여 식재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하부식생을 도입함으로써 각종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그림 18 참조).

시간을 넘나드는 하나의 오브제로서 고즈넉한 고택의 풍경이 연출되도록 하였다. 짙은 소나무 숲을 지나 고택에 다다르면 투시형 담장을 통해 마당 너머로 고택과 화계의 모습이 투시되도록 하였다. 주변의 숲에서 화계로 이어지는 정경과 새소리, 고택의 고풍스러움까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한다. 송림 후면부의 잔디밭과 야외 혼례식장은 정기적으로 저잣거리를 조성하여 공원 도입부에 고택과 어울리는 마을 풍경을 연출한다. 고택이 전체 공원의 오브제이기도 하고, 저잣거리와 어울려서는 하나의 풍경으로, 또 이야기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그림 19 참조).

4) 고건축 풍경계획

2. 기타 제안사항

본 절은 계획의 실현과 함께 바람직한 산지형 공원으로 미래

<p>Preexistence Forest</p> <p>보완 아무 식재</p> <p>글참나무 <i>Quercus variabilis</i> 매죽나무 <i>Syrax japonicus</i> 쪽동백나무 <i>Syrax obassia</i> 물푸레나무 <i>Fraxinus rhynchophylla</i></p> <p>보완 아무 식재</p> <p>리기다소나무 <i>Pinus rigida</i> 진달래 <i>Rhododendron mucronulatum</i> 미선나무 <i>Abeliophyllum distichum</i> 백문둥 <i>Liriope platyphylla</i></p> <p>보완 아무 식재</p> <p>현사시나무 <i>Populus alba</i> 상수리나무 <i>Quercus acutissima</i> 매죽나무 <i>Syrax japonicus</i></p> <p>보완 아무 식재</p> <p>아까시나무 <i>Robinia pseudoacacia</i> 신갈나무 <i>Quercus mongolica</i> 조록싸리 <i>Lespedeza maximowiczii</i> 생강나무 <i>Lindera obtusiloba</i></p> <p>나대지 식생 복원</p> <p>신갈나무 <i>Quercus mongolica</i> 매죽나무 <i>Syrax japonicus</i> 물푸레나무 <i>Fraxinus rhynchophylla</i> 쪽동백나무 <i>Syrax obassia</i> 조록싸리 <i>Lespedeza maximowiczii</i> 생강나무 <i>Lindera obtusiloba</i></p>		<p>Grove Program</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ine Grove 2. Flower Garden 3. Quercus variabilis Grove 4. Cherry Tree treef 5. Lotus Pond 6. Growing Garden 7. Quercus variabilis grove 8. Zelkova serrata
---	--	--

그림 18. 식재 및 생태계획

상을 모색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더해 활용과 관리 프로그램이 필수적일 것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된 내용들이다. 주된 내용은 지형과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공원에 적극적인 역할 부여로 도시와 소통하는 장소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공원은 건강한 기반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안정화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사회활동이 왕성한 '자립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1) 자립공원

석비레 지형의 산림은 인공적인 간섭을 최소한으로 계획하여 지속가능성 지형과 숲을 이루도록 한다. 자연 자원을 활용한 재생 에너지를 건축물, 시설물 등을 통해 생산하여 공원 자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건축물은 건축용 절연 패널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상부 태양열 집열판과 빗물 순환 장치를 통해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로 계획한다. 시설물은 자체 반

응 시스템을 갖춰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 하면서, 동시에 이용 편의를 위해 상황에 따라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산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땅 속으로 깊게 만들어지는 쓰레기통 디자인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수행하도록 제안하였다(그림 20, 21 참조).

석비레층(saprolite)으로 구성된 대상지의 불안정한 지질특성을 감안하여, 현존 식생과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기존 산책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변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산의 정상부로 갈수록 석비레층이 두껍고 표토가 얇아 토양층이 불안정하므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수림의 보존을 유도한다. 산의 하부와 계곡부는 1차 천이를 유도하는 야생초화류를 도입하고, 최소한의 보식을 통해 토양의 안정화를 유도한다(그림 22 참조). 산지 이용을 위한 동선은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고, 진입과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건강한 산림으로서의 서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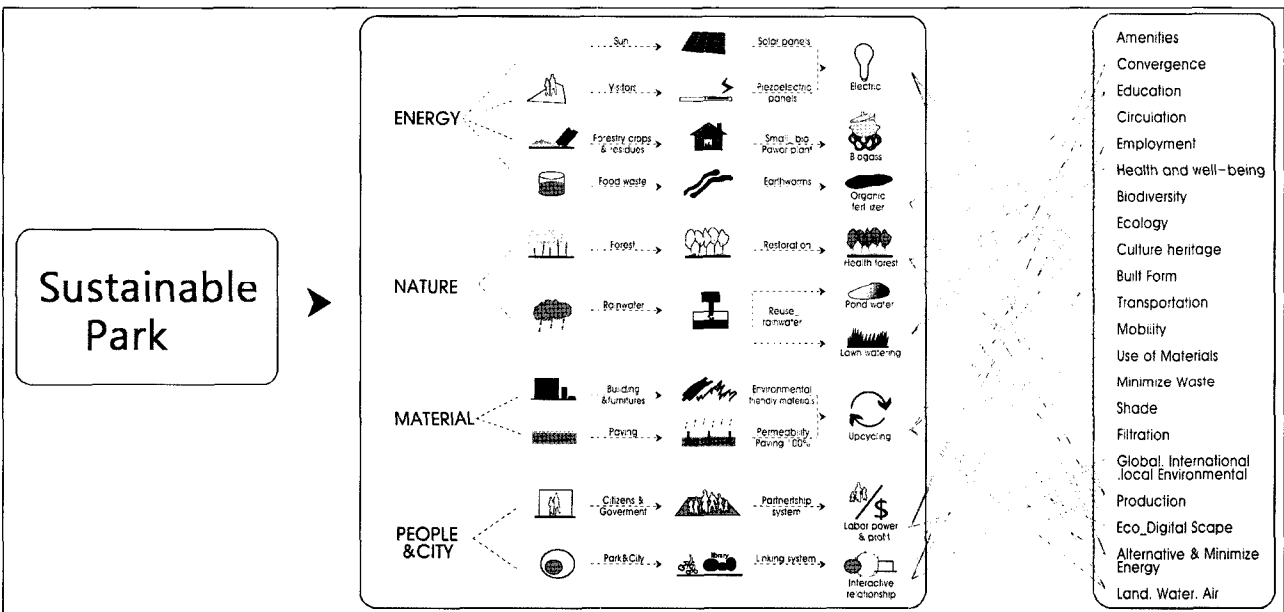


그림 20. 사회성 강한 자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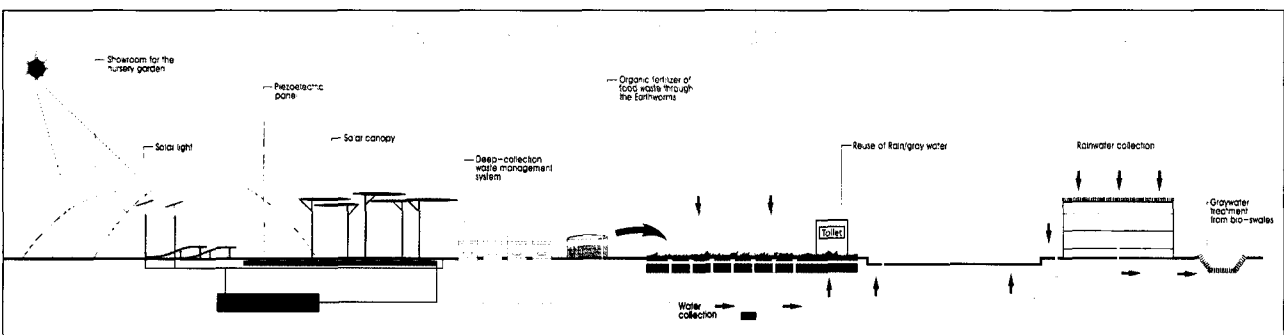


그림 21. 자립공원(Good & Smart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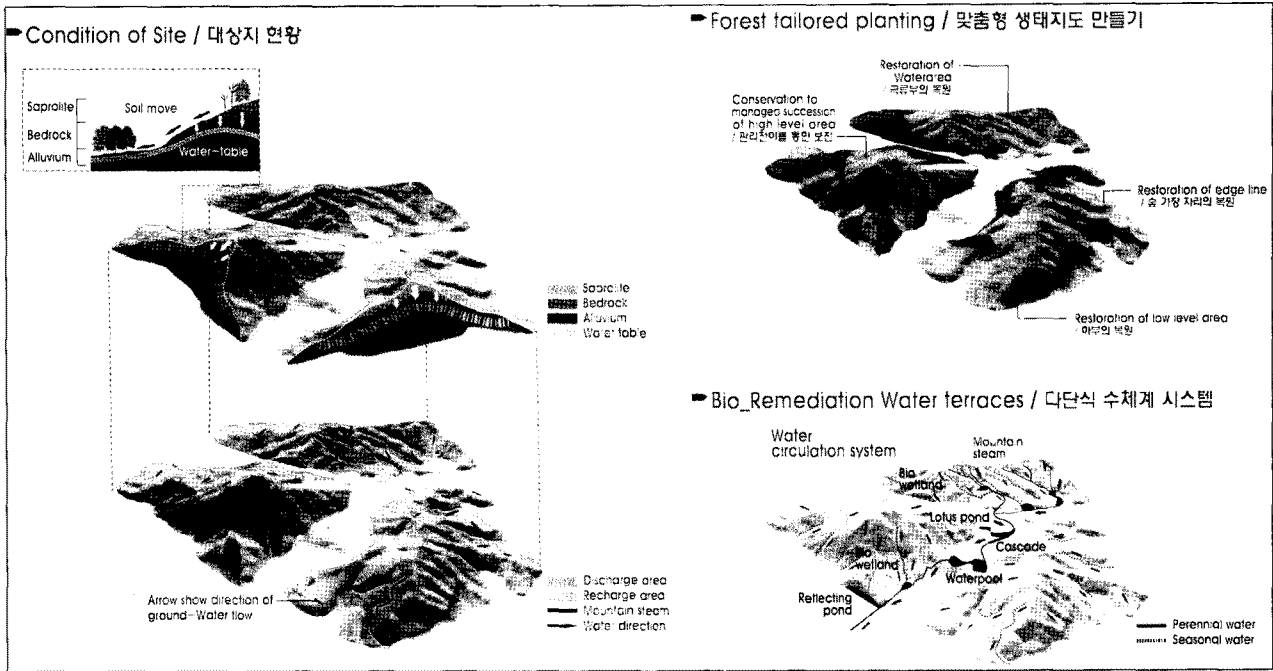


그림 22. 서정성 기반 회복과 석비레 토양층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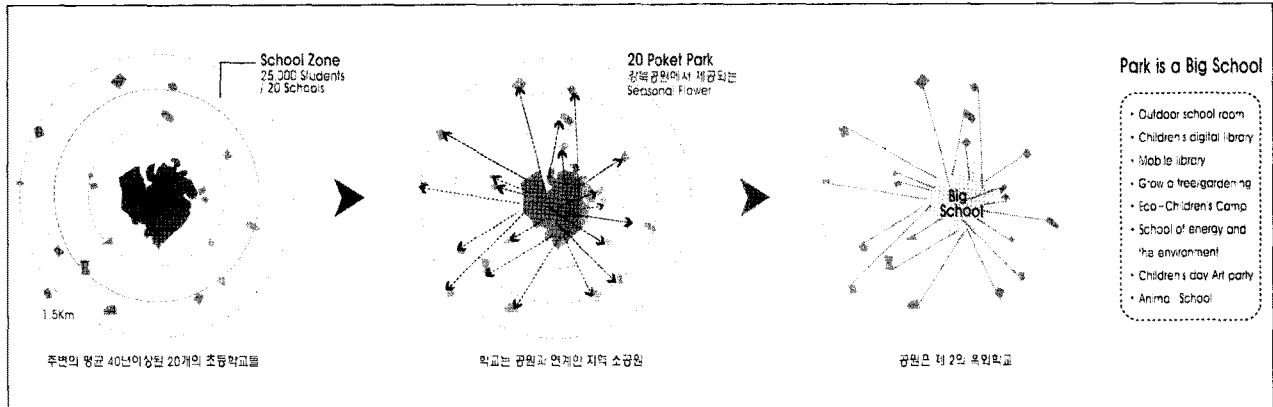


그림 23. 주변 학교와 연계된 사회적 강한 공원

2) 사회활동이 왕성한 공원

바람직한 공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과 시민단체의 연계를 활성화 한다. 태양열 이동도서관 운영, 학교와 관계 맺기 등의 세부적인 이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그림 23 참조). 나무이름 붙여주기 등 주민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함과 동시에 주민들 삶의 태도와 방식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 대형공원이 시민 정서를 함양하는 중개자로서 살맛나는 도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VI. 결론

본 계획을 통해 강북 대형공원을 산과 어우러진 풍경으로 조

성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해 도시인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고즈넉한 장소로 만들고자 하였다. 본 계획에서 강북 대형공원에 구현하고자한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형 공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국토의 64%, 서울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산은 공간을 구조화 하면서 한국 경관의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산에서 선조들은 사색과 시 짓기 등의 풍류를 즐겼고 호연지기를 길렀다. 현대에는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산책과 등산, 체력단련시설에 국한된 이용에 그쳐 산을 대하던 전통적인 태도와 풍류가 사라졌다. 따라서 본 계획을 통해 옛 사람들이 산을 즐겼던 정취를 강북공원에 재현하고자 하였다. 숲과 지형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 속에 작은 매체들을 도입하여 문학과 예술, 놀이와 상상, 자

가 만들어가는 스토리텔링의 재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산에 대한 미의식을 되찾고, 이러한 이용행태가 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되어 건강한 산과 사람, 도시의 동거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둘째, 이러한 계획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다랑이 논의 이미지를 공원 계획의 주요 모티브로 채택하였다. 산자락의 경사와 골짜기에 적응하며 조성된 다랑이 논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산지가 많은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경관인 다랑이 논의 유기적인 형태와 기능을 차용함으로써 경사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듯한 정겨운 풍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각 단은 도시민의 다양한 공원이용 행태와 욕구를 담는 그릇이 되었다. 다양한 공원이용과 시설이 설치된 여러 단을 구불거리며 관통하는 길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도시 속의 새로운 산지형 공원조성 모델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성 강한 자립공원을 만들고자 하였다. 도시 속에 섬처럼 존재하는 그림 같은 공원은 더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본 대상지는 인접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수용함으로써 공원과 지역 주민, 이용자 각 계층 간 활발한 교류의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학교, 커뮤니티, 지자체 등과 의 원활한 관계 맺기를 통해 공원은 도시와 소통하며 점차 유연하게 변해갈 것이다. 아울러 지질 특성과 현존 식생을 고려하여 숲의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하고,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건축물, 시설물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원의 생태적 자립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 내 대형 산지형 공원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창의적인 계획안을 수립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계획안은 기본 및 실시설계로 발전되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프로젝트(un-built project)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다만 본 계획을 통해 제안된 주요안점과 개념들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

어지고 발전된다면 우리나라 여러 도시의 많은 산지형 공원의 개선과 신규 조성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 1. 이 계획안은 2008년 4월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강북 대형공원 마스터플랜 국제 현상설계 공모'에서 공동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인용문헌

1. 금장태(1993) 한국사상의 고향으로서 산(최정호 편, "산과 한국인의 삶"). 서울: 나남출판사.
2. 김경동(1993) 산과 도시 주거생태학: 서울시의 사례 관찰(최정호 편, "산과 한국인의 삶"). 서울: 나남출판사.
3. 김동윤(2007) 좋은 삶과 웰빙 지향성의 공간: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계간 사회비평 38호(겨울). 서울: 나남출판사.
4. 김우창(1993) 산의 시학, 산의 도덕학, 산의 형이상학: 산과 한국의 시(최정호 편, "산과 한국인의 삶"). 서울: 나남출판사.
5. 김우창(2006) 풍경과 마음. 서울: 생각의 나무.
6. 김우창(2007) 도시의 미학 공간의 미학. 한국비평이론학회: 계간 비평 17호(겨울). pp.246-269.
7. 서울특별시(2008) 강북 대형공원조성 마스터플랜 국제현상공모 지침서.
8. 서울특별시(2000) 서울의 주요산 경관풍치 보전계획 보고서.
9. 성종상(2006) 한국 도시공원의 과거, 현재, 미래.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40-49.
10. 이용한(2007)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길. 서울: 넥서스 BOOKS.
11. 최정호(1993) 산과 한국인의 삶(최정호 편, "산과 한국인의 삶"). 서울: 나남출판사.
12. 황익주(2005) 골목길과 광장 및 공원 -도시에서의 '우리 동네' 형성에 관한 인류학적 에세이-. 대한건축학회지 49(1): 69-76.
13. Bachelard, G.(1992) Poétique de L'Espace. 라광수(역), 공간의 시학. 서울: 동문선, 2003.
14. Heidegger, M.(1954) Vortrage und Aufsätze. 이기상, 신상희, 박찬국(역), 강연과 논문. 서울: 이학사, 2008.
15. Sansot, P.(2000) Du bon usage de la lenteur. 김주경(역),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서울: 동문선, 2000.
16. <http://www.forest.go.kr>
17. <http://www.gangbuk.seoul.kr>
18. <http://www.visitseoul.net>

원 고 접 수 일: 2008년 8월 5일
 심 사 일: 2008년 9월 13일(1차)
 2008년 9월 29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08년 10월 6일
 3 인 익 명 심 사 필